2020년 제1차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개최 관련

<table>
<tr><td>대 상</td><td>작약도(芍藥島)
*고시일 1961.04.22.(국무원 고시 제16호)</td><td>변경하고자하는 지명</td><td colspan="2">물치도(勿淄島)</td></tr>
<tr><td rowspan="2">행정구역</td><td rowspan="2">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일원</td><td rowspan="2">경 위 도</td><td>경도</td><td>37°29'51.30'</td></tr>
<tr><td>위도</td><td>126°35'20.16'</td></tr>
<tr><td>관리주체</td><td>인천광역시 동구청</td><td>관리명칭</td><td colspan="2">작약도(芍藥島)</td></tr>
<tr><td>지명 유래 및 변경 사유</td><td colspan="4">○ 본래지명인 물치도(勿淄島)는 ‘강화해협의 거센 조류를 치받는 섬’ 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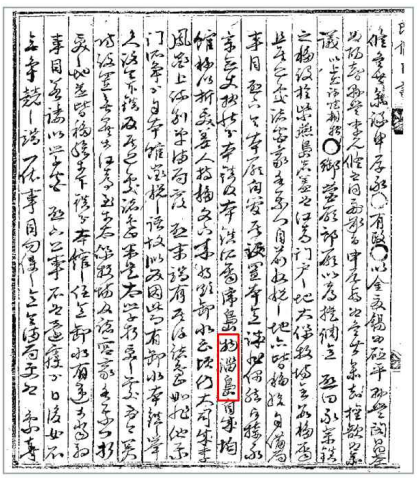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 물치도를 매입한 한 일본인 화가가 ‘섬의 형태가 작약꽃 봉오리를 닮았다’고 해 붙여진 것으로, 1896년 9월 일본의 인천영사관이 본국 외무차관에게 보낸 ‘인천항 정황 보고’에 물치도가 작약도로 최초 기록되어 있고 이후의 일본인 내부 외교문서에는 모두 작약도로 표기되어 개항이후 일본에 의해 작약도로 불리운 것으로 추정됨

○ 조선후기 우리나라의 고문헌, 고지도에 일관되게 물치도로 표기된 점과 1876년 8월 개항초기 일본 해군에 의해 제작된 ‘월미도해협약측도’에 물치도라 표기된 점 을 볼 때 본래 지명이 물치도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임.

○ 일제강점기에 변경된 물치도의 본래 지명을 환원하여 물치도의 정체성과 우리고유의 역사를 되찾고자 지명 변경하고자 함</td></tr>
</table>

참 고 물치도 지명 유래 관련 조사자료

❒ 고문헌 ·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 현황

고문헌 · 고지도		수 록 내 용
문헌(지도)명	수 록 정 보	
어영청등록 (1625~1884)	숙종 16년(1690) 5월 6일, 5월 9일 中	○ 물치도는 원래 성균관의 절수(토지 또는 결세를 받는 곧)처 였음. ○ 물치도가 영종진 소속으로 바뀌자 성균관에서는 사람을 보내 물치도의 물을 막으려 하였으나 결국은 영종진 소속으로 결정됨 자료 1.『御營廳謄錄』1690년(숙종 16) 5월 6일 원문 御營廳郎廳, 以都提調意啓曰, 永宗鎭之移設於紫燕島者, 蓋爲江都門戶之地. 太僕牧場, 全數移屬, 且其近處諸宮家各衙門, 自前收稅之地, 亦皆移給, 自備局事目啓下, 令本廳句管, 其設置本意, 誠非偶然. 卽接永宗僉使報狀, 則本鎭及本鎭所屬虎島·勿淄島, 自成均館, 稱以折受, 差人持移文下來, 將欲卸水云. 頃(근래) 仍大司成李鳳徵上疏別單, 備局覆啓末端, 有其餘諸島, 如非他衙門所爭, 則自本館徵稅之語, 故似必因此而有卸水本鎭之擧矣. 設令本鎭, 及其近處諸島, 果是太學折受之處, 到今關防設置, 無異於江都, 至於太僕牧場, 及諸宮家各衙門折受之地, 竝皆移給於本鎭, 則本館之任意卸水, 有違於當初事目, 若諉以學宮啓下公事, 不爲還寢, 則日後必不無爭競之端, 一依事目勿侵之意, 令備局更爲稟奪, 何如? 答曰, 允. 以上御營廳謄錄. 자료 2.『御營廳謄錄』1690년(숙종 16) 5월 9일 원문 備邊司啓曰, 御營廳啓辭云云. 令備局更爲稟達, 何如? 答曰, 允下事, 命下矣. 永宗鎭之設置, 蓋爲關防之重, 本鎭近處諸島, 勿論牧場·宮家·衙門折受, 竝皆移給, 則太學, 設有久遠折受之地, 揆以卽今形勢, 輕重有別. 當初覆啓, 只言非各衙門所爭, 則自本館徵稅之語, 而未及詳審設鎭時節目, 今此永宗鎭之必欲還屬, 實出於勢不獲已, 虎島, 物淄島等島, 依前還給永宗鎭, 何如? 答曰, 允. 以上御營廳謄錄.
승정원일기 (1623~1894)	숙종 16년(1690) 5월 6일 中	○ 물치도에서 발생한 성균관 절수지에서의 사수(물을 막아 어망 등을 설치 함) 문제로 인한 어영청과의 분쟁 기록 

고문헌・고지도		수 록 내 용
문헌(지도)명	수 록 정 보	
고종실록 (1863~1907)	고종 3년(1866) 9월 7일 中	○ 경기 감사와 통진 부사, 덕포 첨사가 팔미도에 정박한 이양선의 이동 보고 내용 중 물치도 언급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올린 등보(謄報)에 의하면, 「이달 5일 오시(午時) 경에 이양선(異樣船) 3개의 돛을 단 배 3척과 2개의 돛을 단 배 4척이 신의 수영(水營)의 경내에 있는 팔미도(八尾島) 외해(外海)에서부터 부평 경계의 물치도(勿雉島)와 호도(虎島) 사이에 가서 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방비를 계속 강화하도록 엄히 신칙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고종 3년(1866) 9월 10일 中	○ 영종 첨사 심영규가 이양선의 상황을 보고한 내용 중 물치도 언급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이달 9일 사시(巳時) 경에 저 배 중에서 종선(從船) 2척이 물치도(勿雉島) 앞바다로부터 신의 영(營) 경내에 왔기에 군교(軍校)를 거느리고 즉시 그들의 배 옆에까지 갔더니 그자들이 일제히 총을 쏘아대며 포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놈이 먼저 글로 써서 보여 주었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묻기를,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고종 8년(1871) 4월 8일 中	○ 영종방어사 보고 내용 중 물치도 언급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가, "오늘 오시(午時) 쯤에 이양선(異樣船) 작은 배 4척을 시켜 동쪽과 서쪽의 물깊이를 재게 하였는데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영(本營) 관할구역 마지막 경계인 물류도(勿溜島)의 뒷바다를 지나 부평(富平) 경계에 정박하였습니다. 본영과의 거리는 7리(里)입니다."라고 아뢰었다.[44]
대동여지도 (1861)	철종 12년(1861) 김정호 제작	○ 물치도(勿淄島)라 표기 [별첨1]
경기읍지 (1871)	고종 8년(1871) 경기읍지 1책 영종진읍지	○ 물치도(勿淄島)라 표기 [별첨2]
지방지도 (1872)	영종지도	○ 물치도(勿淄島)라 표기 [별첨3]
지방지도 (1872)	인천부지도	○ 물치도(勿淄島)라 표기 [별첨4]
화도진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	○ 물치도(勿淄島)라 표기 [별첨5]
지방도 (1910)	육지측량도 인천 (조선5만분1)	○ 물치도(物淄島)라 표기 [별첨6]